



봄날 양림동으로 떠나는 '갤러리 피크닉'

양림미술관 '영호남교류전' 사직갤러리 '1984 일러스트' 한희원미술관·갤러리온 등 근대식 한옥 전시공간 눈길

거리마다 봄꽃이 만개한다. 봄날의 피크닉은 남구 양림동으로 떠나보자. 갤러리와 작은 미술관들이 저마다 화폭 속 세상을 전시하고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전통한옥과 서양식 가옥 형태가 뒤섞여 호젓한 자태를 드러내는 양림미술관은 영호남구상작가 교류전 '산넘고 물건너 만나는 달빛 하모니'를 오는 28일까지 연다. 봄 시즌에 맞춰 화려하

면서도 은유적인 꽃 그림과 푸릇한 일출의 풍경이 펼쳐진다. 사실적인 터치로 한그루의 매화를 완성하는 강남구, 기호화된 산수풍경을 그리는 신호재, 달항아리 풍경 조문현 등 광주 대표 중견 화가들과 울산에서 활동하는 주요 작가 46인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한다.

발걸음을 옮겨보자. 양림미술관 바로 옆 붉은 벽돌 특유의 엔틱한 분위기를 뽐내는 사직도서관에는 1층 갤러리가 있다. 사직갤러리는 조지오웰의 소설 '1984' 일러스트판 원화 전시를 오는 23일까지 이어간다. 과거의 시간에서 상상한 먼 미래, 1984년의 디스토피아 사회가 흑백의 드로잉과 섬뚱

한 비유 속에서 펼쳐진다.

사직도서관 뒤쪽으로 펼쳐진 양림동 골목의 중심, 양촌길로 넘어가면 '근대 역사문화마을'이라는 호칭답게 근대식 가옥 스타일의 갤러리가 즐비해 있다.

소박한 전시공간이 특징인 포도나무아트스페이스가 기획초대전으로 신영희 개인전 '어떻게 우 울라우트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을까'를 5월4일까지 연다. 우 울라우트는 독일어 모음 가운데 이중모음을 의미한다. 낯선 이방인에 어렵기만 한 이 발음을 직접 흉내내는 작가의 영상과 발음하고 있는 입안을 본뜬 몰드를 전시해 언어의 서투름이 이주민을 사회에서 돌출시키는 사회적 약점임을 목격한다.

역시 근대식 가옥이 눈길을 끄는 갤러리온은 최근 개관했다. 지난 12일 열린 오프닝 행사 때, 팝핀현준, 이종배, 나관범 3인이 모인 LOL크루가 완성한 대형 그래피티 벽화와 함께 이들이 참여한 개관기념전시를 5월26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유쾌한 캐릭터부터 키치한 화면까지 젊은 감각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골목을 따라가다 보면 고요한 감성을 지닌 갤러리S가 나온다. 상설전시로 전통자수 등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동시에 소품도 구매할 수 있다.

이 길 안쪽에는 한희원 미술관이 있다. 광주 대표 중견화가 한희원 작가는 유년시절부터 자란 양림동에 작은 한

옥을 매입해 자신의 이름을 딴 한희원 미술관을 지난 2015년 개관했다. 미술관에서는 한희원 작가의 민중미술 초기작부터 두꺼운 화폭을 완성하고 있는 바이올린 켜는 사람, 존재 시리즈 등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봄날을 만끽할 수 있는 서정적 풍경들도 가슴에 스민다.

이 외 이강하미술관 '북극의 신화, 소멸의 저항', 이이남스튜디오 '조우: Here, We Meet',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 '무등조각전', 양림148카페갤러리 '양림에 부는 바람', 오방 최홍중 기념관, 소심당 조아라기념관 등에서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방과 후 ACC서 음향 예술가 돼볼까”

선착순 15명... 내달 매주 수요일

방과 후 청소년이 음향 예술과 관련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진로체험 프로그램인 방과 후 ACC 청소년 예비전문인 교육 '사운드 아티스트'를 오는 5월 1~29일까지 매주 수요일 문화정보원 B2 미디어실에서 운영한다.

'방과 후 ACC 청소년 예비전문인 교육'은 문화예술 관련 진로를 체험하는 심

화형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이 예술을 경험하고 예비 문화예술 전문인으로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과정으로 구성됐다. 참가자가 소리를 예술 작품으로 연출하고 전달하는 음향 예술가(사운드 아티스트)가 돼 스스로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수강 신청을 하면 된다. 선착순 15명을 모집하며 교육비는 무료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동구문화관광재단, '탈린뮤직위크' 참가

글로벌 음악축제

'광주 버스킹 월드컵' 홍보 독려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이 지난 3~7일 에스토니아에서 열린 '탈린뮤직위크'에 참석, 제3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을 전 세계에 알렸다.

'탈린뮤직위크'는 2009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전 세계 2만여명의 참가자와 1000여명의 음악산업 전문가가 참가하는 글로벌 음악·도시문화 축제다.

이번 축제에서 재단은 광주 버스킹 월드컵 전년도 수상자인 '오헬렌'의 쇼케이스 공연을 개최했다. 광주 버스킹 월드컵을 통해 발굴한 국내 뮤지션을 지속 육성하고자 지원한 오헬렌의 쇼케이스는 "KOREA-TAIWAN MUSIC FLIGHT"라는 주제 아래 한국 뮤지션 쇼케이스로 진행됐다.

5일 공연에 300명의 관객과 글로벌 음악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쇼케이스에서 오헬렌은 자신만의 독특한 음색과 음악성으로 관객을 사로잡으며 뜨거운 환호와 앵콜 세례를 받기도 했다.

공연에 참석한 관객은 "K-POP과 또 다른 한국 음악의 매력을 느끼고 관심을 갖게 됐다"며 "광주 버스킹 월드컵에도 참

여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재단은 탈린뮤직위크 개최 기간 동안 오프닝 리셉션, 도시 전역의 쇼케이스 공연, 음악산업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제3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을 홍보하고 참가를 독려했다. 또한 지속 교류 및 홍보를 위한 탈린뮤직위크 조직위원회와 MOU 체결 등 글로벌 뮤지션 및 음악산업 네트워킹도 강화했다.

한편 제3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은 광주시 동구, 재단이 주최·주관하는 국제 버스킹 음악축제로, 5월 3일까지 1억원 상금의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buskingworldcup.com)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올해 국내 수상자에 해외 음악축제·마켓 참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본 축제는 10월2~6일 제21회 광주 추억의 중장축제와 동일기간 개최한다.

문창현 재단 대표이사는 "수상자 해외 쇼케이스 지원을 통해 국내 뮤지션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과 해외 네트워크 구축에 좋은 기회가 됐다"며 "중장축제와 함께 광주 버스킹 월드컵의 글로벌 축제 도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어린이 그림으로 다시 만난 시 '시야, 그림아...' 기획전

8월31일까지 시인 문병란의 집

한평생 자유·인권·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했던 저항시인 문병란(1935-2015)의 작품을 초등학생 그림으로 마주하는 기획전이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 동구는 자산동 '시인 문병란의 집'에서 초등학생들이 주인공이 된 '시야, 그림아, 함께 놀자' 기획전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는 시 그림책 '시야, 그림아, 함께 놀자' 발간에 따라 기획된 행사다. 앞서 동구는 지난 1월 '시인 문병란의 집'에서 겨울방학을 맞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인의 시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기획 프로그램 '시야, 그림아, 함께 놀자'를 진행했다. 동구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그림들을 책으로 한데 엮은 그림책 발간을 기념하기 위해 이번 기획전을 마련했다.

'시야, 그림아, 함께 놀자' 프로그램에서는 시인의 시 한 편당 4명의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고, 시 8편에 32명의 아이들이 참여했다. 원제목은 공개하지 않고 시만 제공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극대화하고 완성된 그림에 아이들로 하여금 제목을



8월 31일까지 시인 문병란의 집에서 초등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한 '시야, 그림아, 함께 놀자' 기획전이 진행된다. 광주 동구 제공

붙이도록 했다.

기획전 개막 후 아이들 저마다 자신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담아 풀어진 그림과 작품 제목들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고 탄성과 흥미를 이끌어내기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아이들이 자신이 그린 그림에서 보여주듯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주기를 응원한다"면서 "문병란 시

인의 정신과 사상이 녹아있는 시구와 아이들의 상상력이 만나 이뤄낸 이색 기획전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한평생 민족 문학운동과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문병란 시인의 작품과 생애를 기리기 위해 지난 2021년 시인의 자택을 매입 후 개보수해 '시인 문병란의 집'을 조성하고 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선인 기자

광주대 평생교육원 향목회 회원전 '묵향은 어디에나'

30일까지 호심미술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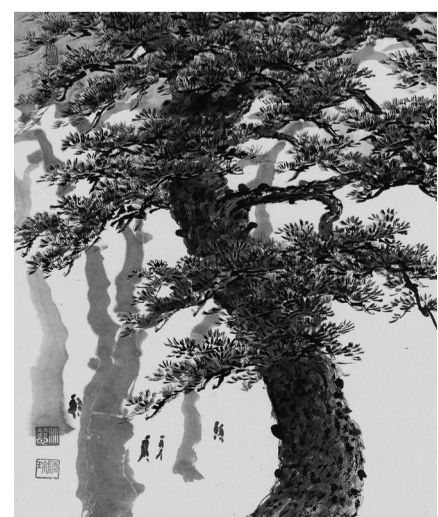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화반 출신 50~60대 시니어 화가들의 모임인 '향목회(香墨會)'가 '묵향은 어디에나'를 주제로 2번째 회원전을 갖는다.

광주대 호심미술관에서 오는 30일까지 회원 19명 작품 28점이 전시된다.

선철규 향목회 회장은 "자연과 사물, 마음속에 간직된 것을 묵과 붓으로 표현했다. 한국화 저변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

했다. 향목회 지도강사인 행당 박인주 화백은 "젊어서 가족을 위해 일한 뒤 퇴직 후 제2 인생을 그림공부를 하며 성취감을 느끼는 회원들의 모습에 행복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준호 광주대 호심미술관장은 "수묵화는 쉬운 장르가 아님에도 박인주 화백의 지도로 성인 학습자들의 화업이 전시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대학 미술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박철심 작 소원을.